

## 유가(儒家)의 ‘반복(反復)’ 미학에 관한 고찰\*

장준영\*\*

### — 목 차 —

1. 미학 담론으로서의 ‘반복(反復)’
  - 1) ‘반복’ 미학의 좌표
  - 2) ‘반복’ 미학의 문화 접점
2. ‘학습(學習)’의 미학
  - 1) ‘발분(發憤)’과 ‘호학(好學)’
  - 2) ‘절차탁마(切磋琢磨)’
3. ‘축적(蓄積)’의 미학
  - 1) ‘적행(積行)’과 ‘독행(篤行)’
  - 2) ‘삼인행(三人行)’
4. ‘처세(處世)’의 미학
  - 1) ‘인(仁)’과 ‘예(禮)’
  - 2) ‘수렴(收斂)’과 ‘정위(定位)’
5. 맺음말

### 국문초록

‘반복(反復)’ 미학은 선진(先秦) 시기 유가(儒家)의 독특한 문화 형태 중의 하나로서 『논어(論語)』를 포함한 유가 경전 및 관련 기록들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적어도 삼세번”이란 표현은 유가 ‘반복’ 미학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과 문화가 유가 사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반복’ 미학이 지니는 담론으로서의 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93831)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특임강의교수

치와 문화적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본격적인 연구에서는 크게 공자(孔子)가 제창한 ‘학습(學習)’ 이론과 순자(荀子)의 ‘적행(積行)’론 그리고 유가의 핵심 사상 ‘인(仁)’과 ‘예(禮)’에서의 ‘처세(處世)’론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각자의 영역에서 ‘반복’ 미학의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키워드:** 유가(儒家), 반복, 미학, 문화, 축적, 절차탁마(切磋琢磨)

## 1. 미학) 담론으로서의 ‘반복(反復)’

### 1) ‘반복’ 미학의 좌표

일상에서 ‘반복(反復)’<sup>2)</sup>이란 말은 너무 흔해서 좀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을 디자인이나 미학 쪽으로 끌어 오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매력적인 개념이 된다.<sup>3)</sup> 유가(儒家) 문헌 속에 드러나는 ‘반복’이란

- 1) ‘미학(美學 aesthetics)’은 고대 그리스어 ‘아이스테시스(aisthesis)’에서 유래하였으며 원래는 ‘감각’ 또는 ‘지각’을 의미하였다. 고금 ‘미(美 아름다움)’의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 담론 가치가 인정되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지금은 단순히 예술작품으로부터 미감(美感)을 지각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의 삶과 행위 속에 내재한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움’과 그 ‘관계성’을 탐색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철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
- 2) ‘반복(反復 repetition)’은 자연의 질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순환 구조이다. 일몰과 일출, 출생과 사망, 계절의 변화 등은 자연의 질서에서 볼 수 있는 ‘리듬’의 지속적인 재현 현상이다. 미학의 법칙 중에 질서정연한 규칙성은 미술과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울어진 액자나 양복의 먼지는 규칙성을 선호하는 뇌의 요구에 반하며 시각적으로 반복되는 리듬을 선호하는 뇌의 경향 증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디자인에서의 ‘반복’은 하나의 디자인 요소를 동일한 양과 간격으로 ‘일정하게 되풀이’하여 움직임과 율동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시각적 리듬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김영인, 『시각표현과 색채구성』 5장 ‘디자인의 원리 리듬’ 부분 참조)
- 3) ‘반복’의 문화적 특성을 미학의 범주에서 논할 수 있는 이유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 온 미학 토론이 오늘날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예술 창작의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

문화적 특성을 미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기존의 문학적 혹은 수사학(修辭學)적 측면의 연구에 비하여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인문학적 해석이 가능하며 특히 '반복' 미학이라는 특정 문화 현상을 통한 인간의 지각(知覺)과 감성(感性)의 반응에 대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색다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부연하면 플라톤으로부터 이어진 지고지순한 가치로 대표되는 '진선미(眞善美)'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진(眞)과 선(善)에 대한 접근의 절대성과는 달리 '미(美)'에 대한 토론은 늘 대상과 그 대상을 바라보는 인간 양자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반복'을 철학이나 예술의 관점이 아니라 미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단순한 일상 속의 '반복'이란 삶의 패턴은 식상하고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까지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달리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행위 속에 드러나는 '반복'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부정하거나 소홀히 대한 철학자는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322)는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sup>5)</sup>이다.”라고 하였고, 파스칼(Pascal1623~1662)은 “습관은 제2의

의 삶과 행위의 역영까지 확대되어 감각 또는 지각으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인간 사회 모든 영역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 유가(儒家)의 '반복' 문화 특성은 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삶 속에 침투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학 관점의 천착은 일반적인 '공부론'이나 '수양론'에 비해 더욱 깊이 있는 문화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

4) 『논어(論語)팔일(八佾)』의 “子謂韶, 眞美矣, 又盡善也。謂武, 盡美矣, 未盡善也。”를 번역하면 “공자는 순(舜) 임금의 음악을 듣고는 '아름다움의 극치요 또한 선함의 극치이다.'라고 하였고, 주(周) 무왕(武王)의 음악을 듣고는 '아름다움은 극치이나 선함은 극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인데 이 문장으로부터 우리는 플라톤의 시대와 거의 비슷한 때의 선진(先秦) 시기에도 비록 '진선미(眞善美)'에 대한 본격적인 철학적 토론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미(美)'와 '선(善)'의 독립적인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서는 '습관'을 '버릇'과 동의어로서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만 본 논문의 주제인 '반복'은 의식성이 강한 긍정적 행위를 뜻하고, '습관'은 호불호가 없는 무의적 성향이 강한 행위로서 두 개념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라고 하였으며, 미국 프래그머티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는 심지어 “우리의 삶은 일정한 형태를 띤, 반복 행위로 빚어진 습관의 덩어리일 뿐이다”라고 하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습관 즉, 일상의 ‘반복성’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고금의 철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인간의 반복적 행위의 결과인 ‘습관’을 사색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인간 행위 속에 내재한 ‘반복’ 특성과 그 가치를 인지하고 끊임없이 질문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습관과 관련하여 인간의 ‘반복’ 지향적 성향이 자연의 반복 순환 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밤과 낮의 반복에 따라 잠을 자고 일을 하며,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각종 계절에 맞는 세시풍속을 맞이한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반복되는 일상을 시시각각으로 체감하고 의지하며 혹시라도 그 반복의 규칙이 깨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몹시 불안한 반응까지 보이게 된다. 그만큼 인간은 자연의 ‘반복’ 순환에 익숙해져 있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무심코 이루어지는 인간의 ‘반복’ 행위는 자연의 변화만큼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며 심지어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인정하고 자연에 절대 순응하며 살아가는 생명체로 자신을 묘사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에게 ‘반복’ 행위는 너무나 당연하고 고유한 것이어서 동서고금 현자들은 인간의 ‘반복’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습관’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규칙적인 ‘반복’ 습관<sup>6)</sup>으로 유명 했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sup>7)</sup>의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가 따분하고 권태로운 것으로 여

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엡센스국어사전』 민중서림 2022 참조)

- 6) 칸트의 전기에 따르면, 그는 언제나 엄격히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였는데 이웃 주민들은 그가 산책하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추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매일 반복하는 산책의 규칙이 가장 철저히 지켜지던 시기에 가장 빛나는 저작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 7) 현대 미학에서 임마누엘 칸트가 제시한 ‘무관심성(無關心性)’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무관심성’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자체에서의 느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지 이해관계 즉, 지적 혹은 도덕적 전제가 개입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칸트의 미학 주장과 그의 규칙적인 산책과 같은 실제 행위는 철저한 규칙적 사색을 비유하며 어

기는 일상의 '반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다소 완화시켜 주는 좋은 예이다. 이른바 매너리즘(mannerism)<sup>8)</sup>에 빠진다고 하는 말은 인간이 '반복'에 함몰되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그 현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반복' 행위로부터 얻은 가치를 지키려는 본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인간에게 '반복' 메커니즘의 굴레는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중독(中毒)과도 같다. 그런 점에서 비록 한 사람의 예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 건강을 유지하며 자신의 철학에 몰두했던 칸트의 금욕주의적 '반복'의 일상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중국문화에서도 인간의 '반복' 행위의 속성과 그 가치에 대한 철학적 사색과 현실적 수용에 대하여 광범위하고도 꾸준하게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유가(儒家)에서는 인간의 행위 속에 내재한 '반복' 속성을 '인학(仁學)'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로 판단하고 줄곧 집요할 정도로 천착하였다. 공자(孔子 BC551~479)<sup>9)</sup>는 인간의 지식을 향한 욕구의 반복 행위로서 '학습(學習)'<sup>10)</sup>의 개념을 고안하고 평생 '호학(好學)'의 삶을 살았으며, 순자(荀子 BC313~238)는 '칭출어람(靑出於藍)'<sup>11)</sup>의 이야기를 통하여 '반복' 행

면 경우에도 '임의성'을 허용하지 않는 일관성과 집요함을 상징하며 이는 본 논문의 주제 '반복'의 행위 특성과 유사성을 지닌다.

- 8) 원래는 사실적 재현의 전통에 반기를 들고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에 따라 예술작품을 구현한 16C 이탈리아 예술사조로서 그들의 미술을 '매너리즘'이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틀에 박힌 태도나 방식을 가리키며 예술의 표현법이 늘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어 독창성이나 신선함을 잃고 타성에 빠져버린 상태를 말한다. 틀에 박힌 재현(再現)을 반대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을 주장했던 '매너리즘'이었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사용했던 바로 그 용어로 비판받는 위치가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 9) 공자는 '유가(儒家) 미학'을 창시한 사람이다. 그는 '인학(仁學)'을 통하여 개인의 감정과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서로 일치하는 화합의 미학 사상을 펼쳤다. 공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미(美 아름다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인(仁)'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된 사회라고 보았다.
- 10) 『논어(論語)·학이(學而)』의 첫 문장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는 '학습(學習)'이란 단어의 출처(出處)이다. '학습'은 엄연한 '성어(成語)'로서 '학(學)'은 '새로운 것을 배우다'의 뜻이고 '습(習)'은 '배운 것을 반복하여 익히다'의 뜻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두 개념이 합쳐진 합성어이다.

위의 유용성 등을 포함한 경험론적 이론을 제창하여 공자의 학습 이론을 크게 발전시켰다. 이처럼 공자로부터 시작된 선진(先秦) 유가의 학습 이론은 생각과 행위의 폭을 넓히는 주요 수단으로서 ‘반복’을 내세웠다. ‘반복’과 ‘학습’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별명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개념은 모두 사람들이 견지해야 할 일종의 ‘태도’를 의미하며 ‘인학(仁學)’이라는 유가 미학을 전개하고 완성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先秦) 시기 유가(儒家)의 ‘반복’ 미학은 마치 무한 매장된 지하자원처럼 중국을 포함한 유가 문화 사회의 곳곳에 아주 깊고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자의 가치를 알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듯 점차 인간성이 메말라가는 현실 속에서 넓고 깊게 산재한 ‘반복’이란 정신문화 자원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발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2) ‘반복’ 미학의 문화 접점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문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반복’ 행위를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보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작게는 소소한 일상의 반복으로부터 얻은 경험들을 기록하거나 구전함으로써 그 이익들을 공유하고, 크게는 사회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여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다. 따라서 유가(儒家)의 ‘반복’ 미학에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겸손함과 인내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을 통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요구한다. 순자(荀子)는 「권학(勸學)」 편에서 “반걸음을 내딛

11) 『권학(勸學)」 편의 ‘청출어람(靑出於藍)’은 순자의 ‘인정승천(人定勝天)’ 사상을 내포하는 성어로서 인간은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학습)을 통하여 ‘근본적 변화(혁신)’가 가능한 존재임을 주장하는 상징어로서 자연으로부터 최상의 질푸른 색을 얻기 위한 수천수백 번의 반복 실험과 실천의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

지 않고는 천리를 갈 수 없고, 작은 개울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없다.”<sup>12)</sup>라고 하며 지속적인 ‘반복’ 행위를 통한 ‘축적’<sup>13)</sup>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유가의 ‘반복’론은 탐구자로서의 인간과 탐구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명확히 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을 반복관찰하며 부단히 무엇인가를 ‘축적’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고 유가의 ‘반복’론이 인간과 자연을 일방적인 관계로만 파악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 탐구자인 것은 맞지만 자연에서 얻는 지식들이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축적’일 뿐만 아니라 ‘축적’이 가져온 인간 내부의 심리적·감정적 경험도 그 ‘축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서양의 경험론과 다르다. 이러한 유가의 ‘반복’론은 인간이 관심을 가지는 신변의 모든 현상들에 대한 주·객관적 경험으로부터 오는 ‘축적’을 전제로 하는 원시 형태의 ‘빅 데이터(Big Data)’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인간의 ‘반복’ 행위를 단순한 습관 형성의 원인이 아니라 유의미한 ‘축적’의 전제 조건으로 보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일상을 가치 있게 바라보려는 안간힘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반복’ 행위가 개인적 혹은 문화적 ‘축적’의 의미를 지닌다는 각성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반복’과 ‘축적’의 관계 속에 작용하는 독특한 요소 하나가 존재하는데 바로 ‘리듬’<sup>14)</sup>이라는 것이다. ‘축적’의 힘을 갖춘 도구 사용자는 그 도구를 사용할 때 언제나 청각적·시각적 리듬을 탄다. ‘반복’이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효율은 배가 된다. 어쩌면 양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지루하거나 단순해지기 쉬운 ‘반복’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 것이 ‘리듬’이고, ‘리

12) 故不積跬步，無以至千里，不積小流，無以成江海。(『荀子·勸學』)

13) 본 논문에서 ‘축적(蓄積)’은 의미 있는 ‘반복’ 행위의 결과로 본다. 과정으로서의 ‘반복’과 결과로서의 ‘축적’을 미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이다.

14) 본 논문에서는 ‘리듬(Rhythm)’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된 삶의 필수 요소로 파악한다. 사람들은 움직이거나 멈출 때 그리고 웃거나 말할 때뿐만 아니라 놀이나 춤에서도 자연스럽게 리듬이 따르며 물결이나 바람과 같은 자연 속에서도 리듬을 느낀다. 이처럼 일상에서 ‘리듬’은 흔히 박자의 ‘반복 패턴에 기초한’ 청각적·시각적 규칙성을 띠며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늘 스며있다.

듬' 또한 '반복' 없이는 제대로 멀리 갈 수 없다. 일찍이 삶(생활) 속에서의 리듬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바로 공자(孔子)이다. 공자는 반복의 후렴구를 가진 기본 4음보의 민가들을 모아 『시경(詩經)』을 편찬하고 시교(詩敎)<sup>15)</sup>를 주창한 것은 민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음악을 통하여 교육의 이상을 보다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직접 음악과 연결되어 있는 중국 시가는 당연히 '반복'의 관점에서 그 리듬의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시경(詩經)』 사언체(四言體) 민가의 절제된 리듬으로부터 한(漢) 악부(樂府)를 거쳐 당대(唐代) 근체시 혹은 송사(宋詞)의 평측(平仄)과 압운(押韻)이 가미된 '억양돈좌(抑揚頓挫)'의 특성들은 모두 절제되고 규칙적인 '반복'의 리듬 특성을 띠며 시인들은 수시로 자신들의 유력한 '축적' 능력이라 할 수 있는 화시(和詩)의 '주고받음(唱和)'을 통하여 미적 감흥을 누리고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처럼 인간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리듬'을 통하여 교류하며 자가 '발전(發電)'을 도모하는 능력을 지닌 동물이다. 알다시피 인간의 뇌는 신경회로다발로서 '반복'적인 자극을 통하여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늘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면서도 생명 유지는 물론 창조적인 정신 활동까지 돕는다. 이러한 엄청난 기능의 뇌를 가진 인간은 일상 속에 늘 존재하는 '반복'과 '리듬'의 도움으로 자신의 지적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스스로 교정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어 온전한 진선미(眞善美)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는 마치 현대사회에서 빅데이터를 내장한 인공지능 로봇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딥러닝을 통하여 로봇 스스로 연산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 유사하다. 인공지능 로봇은 디지털적으로 더욱 정교해 질 수 있겠지만 인간은 수천 년간 전승되어 온 인간 고유의 '반복' 리듬의 조화를 통해 감성적으로 더욱 정교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문화 전통은 많은 사람들의 '반복' 참여로 이루어진다. 스웨덴 슬뢰이

15) 고대의 '시가'는 사실 음악과 이음동의어라 할 수 있고 주로 사람의 내적 감정을 교화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시교(詩敎)와 악교(樂敎)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드의 6원칙 중에는 ‘반복은 지식의 어머니이다.’<sup>16)</sup>라는 말이 금언(金言)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생목과 같은 자연 재료와 도구 사용을 선호하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 발명한 도구의 ‘반복’ 사용이 새로운 지식과 독창성을 얻게 해 준다는 것이다. 자연에서 얻은 천연 재료들을 필요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자연물의 도구화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런 ‘반복’ 특성이 전승되며 하나의 전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리처드 세넷<sup>17)</sup>은 “만드는 것이 곧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만드는 것’은 차후 논의할 ‘절차탁마(切磋琢磨)’의 본래의 속성이기도 하다. 만들기 위해 다시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새로운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 문화가 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역사는 도구와 분리할 수 없고 도구의 발전은 인간 행위의 ‘반복’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의 과정 자체가 인간의 ‘반복’ 행위의 문화화 과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 2. ‘학습(學習)’의 미학

### 1) ‘발분(發憤)’과 ‘호학(好學)’

유가의 ‘반복’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일상생활 속 ‘실천(實踐)’<sup>18)</sup>에 있어서의 태도나 행동 양식에 대한 철저

16) 슬뢰이드(slöjd)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스웨덴의 전통적인 수작업 지식과 기능 및 도구 등을 총칭한다. (요계 순크비스트 지음, 용형준 옮김 『스웨덴 슬뢰이드 장인의 그린 우드카빙』 10쪽 참조)

17) 리처드 세넷(1943~, Richard Sennett) 미국 사회학자. 노동과 도시화 연구의 세계적 석학으로 그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 도구의 인간) 프로젝트’를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스스로 삶을 만드는 존재인 인간이 개인적 노력, 사회적 관계,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한 도덕적 요구이다. 성어 ‘인일기백(人一己百)’의 출전에 “다른 사람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백 번을 해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열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천 번을 해야 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명해 질 것이고, 비록 천성이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해질 것이다.”<sup>19)</sup>라는 문장이 있는데 언뜻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어리석은 사람의 고통스런 현실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반복’ 행위에 대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글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유가에서 ‘반복’을 하나의 바람직한 행동 양식으로 간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은 또 어떤 것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유가(儒家)에서 강조하는 행위의 ‘반복’은 대부분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에 관한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그 중에서도 ‘학습(學習)’에 대한 주장을 전개할 때 ‘반복’론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신변 사물에 대한 반복적 관찰과 탐색을 요구한다. 이러한 ‘학습’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발분(發憤)’<sup>20)</sup>과 ‘호학(好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두 개념이 인문학적 의미의 선후 관계는 있지만 모두 삶의 태도에 대한 유가(儒家)의 절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공자(孔子)의 일생을 지배한 불변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자의 ‘발분’ 정신과 ‘호학’ 태도는 사사로운 일상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노래를 하다 즐거우면 반드시 그 노래를 반복하여 부르게 하고 그에 응하여 스스로도 반복하여

18) 주희(朱熹)는 『주역대의(周易大義)』에서 “終日乾乾, 反復道也。(『易乾』)” 구절의 ‘反復’을 ‘反復, 重複踐行之意’이라고 풀이하였는데 이는 당시 ‘반복’의 의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천 행위’로서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果能此通矣, 雖愚必明, 雖柔必強。(『禮記·中庸』)

20) ‘발분(發憤)’은 군자가 취해야 할 태도로서 ‘지적 욕구로 가득한 깨어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발분’은 공자(孔子)가 늘 강조하는 군자의 행동 강령이라 할 수 있는 ‘호학(好學)’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호학’ 정신의 바탕이 되는 사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줄고, 「‘발분(發憤)’의 궤적을 통해 본 인간정신의 ‘미학적 동력(動力)’ 생성에 대한 고찰」(중국연구 2016) 참고.

노래를 불렀다.<sup>21)</sup> 벗과의 사사로운 만남에서조차 늘 호기심으로 가득한 ‘학습자’로서 ‘학이시습(學而時習)’의 태도를 견지하는 공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학(學: 새로운 지식의 추구하고 축적)’과 ‘습(習: 배운 지식의 반복 적용과 실천)’의 일상화를 통하여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교화(教化)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공자(孔子)의 ‘학습(學習)’에 대한 열정은 가히 ‘무한 반복’으로 돌아가는 용광로처럼 식을 줄 몰랐다. 그는 평생을 한 번도 공부 이외의 것에 크게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을 정도이다. 어느 날 접공(葉公)이 자로(子路)에게 공자(孔子)는 어떤 사람인지 물었으나 자로가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에 공자가 자로에게 말하기를, “자로야, 너는 어째서 내가 공부에 심취하여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언제나 즐거워서 근심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 이렇게 늙어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sup>22)</sup>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평생을 동분서주하며 학문을 위한 ‘반복’ 탐구의 일생을 살았던 공자의 삶을 잘 요약하고 있다. 공자의 지식탐구에 대한 무한 반복의 학습 태도라고 할 수 있는 ‘호학’ 행위는 때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았으며 언제나 새롭고 신기한 질문과 침예한 생각들로 가득하였고 제자들은 매일같이 달라진 스승을 만날 수 있었다. 심지어 유가의 핵심 사상인 ‘인(仁)’이나 ‘효(孝)’에 대해서도 공자는 늘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답을 찾기에 골몰하였다. 매번 그가 제시하는 문제들은 공자 자신이 반복적으로 절차탐마하여 얻은 결과물들이었고 늘 아낌없이 제자들과 공유하였다.<sup>23)</sup> 이러한 공자의 ‘호학’ 정신은 바로 배움에 대한 ‘반복’의 경이로움을 그대로 보여

21) 子與人歌而善，必使反之，而後和之。（『論語述而』）

22) 葉公問孔子於子路，子路不對。子曰，女奚不曰，其爲人也，發憤忘食，樂以忘憂，不知老之將至云爾。（『論語述而』）

23) 子曰，二三子以我爲隱乎。吾無隱乎爾。吾無行而不與二三子者，是丘也。（『論語述而』） 공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감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너희들에게 감추는 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조금도 감추는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나(공자)다.” 이 글은 공자가 평범한 일상에서도 늘 학습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며 동시에 제자들에게 호학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의 이러한 학습 태도는 인간의 지식 자체를 힘으로 보고 ‘아는 것이 힘이다’<sup>24)</sup>라고 주장한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반복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모종의 가치를 축적하게 되고 그러한 ‘축적’은 인간만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문화 전승의 도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베이컨의 자연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증시한 귀납적 사고와 유가(儒家)의 ‘반복’ 미학은 그 접근법에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학이시습’의 ‘시습(時習)’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묘사한 것이 ‘거일반삼(舉一反三: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sup>25)</sup>이고, ‘온고지신(溫故知新)’<sup>26)</sup> 역시 옛것에 대한 반복적 탐구 혹은 학습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일종의 적극적인 ‘반복’ 학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가에서의 ‘반복’은 단순히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 혁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느리지만 강력한 실천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자가 주장하는 ‘호학(好學)’은 사람이란 누구나 ‘발분(發憤)’ 즉, 언제나 지적 욕구로 가득찬 고도의 자각 상태를 유지하며 새로운 지식을 쌓는 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며 배운 지식을 잊지 않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음미하고 익혀 둘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호학’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군자불기(君子不器)’<sup>27)</sup>의 주장을 통하여 사람들이 고정 관념에 갇히는 것을 경계하고 언제나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주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24) 이 격언으로 대표되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사상은 경험론을 낳았고 이후 과학적 방법론의 토대 중 하나가 되었다.

25) 子曰, 不憤不啓, 不悱不發, 舉一隅不以三隅反, 則不復也。(『論語·述而』)

26)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論語·爲政』)

27) 子曰, 君子不器。(『論語·爲政』)

## 2) '절차탁마(切磋琢磨)'

한국어에도 사용하는 '절차탁마(切磋琢磨)'<sup>28)</sup>는 거의 모든 언어·문화 분야에 걸쳐있는 만능열쇠와 같은 핵심 문화 코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어휘 중의 하나로만 분류하기엔 그 안에 담겨있는 언어·문화적 의미가 너무나 깊고 풍부하다. 물론 그 유래는 『시경(詩經)』이지만 공예 기법으로서의 '절(切)'-'차(磋)'-'탁(琢)'-'마(磨)'는 순서대로 '자르고, 다듬고, 쪼고, 갈고'의 각기 다른 뜻으로 쓰이지만 모두 공예품이나 일상 생활용품의 '제작하다'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글자를 네 번이나 사용한 것은 당시 도구를 다루는 방법에서 엄연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절차탁마'가 문화 언어의 범주로 사용되면서부터는 정성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다듬는 '반복' 가공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노련한 공예가가 무수한 반복의 망치질로 하나의 조각 작품을 완성하듯이 '절차탁마'하며 반복적인 사고와 실천을 거듭하며 완성(목적지)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 '절차탁마'의 주요 어원을 형성하는 초기 문장들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시경(詩經)』의 두 작품 「기오(淇奥)」<sup>29)</sup>와 「학명(鶴鳴)」<sup>30)</sup>에서 쓰였고, 실제로 네 글자가 같이 쓰인 것은 『논형(論衡)』<sup>31)</sup>에서이다. 그리고 공자가 제자의 호학 태도를 극

28)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면, '절차탁마(切磋琢磨)'는 애초에 도구를 사용하여 장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만드는 작업 형태(자르다, 다듬다, 쪼다, 갈다)를 가리켰으나 후대로 오면서 어떤 일을 모여서 상의 하거나 연구한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네 가지 작업 형태가 구분되곤 있지만 사실 작업을 할 때 일련의 되풀이되는 과정이므로 논문에서의 '반복'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骨謂之切, 象謂之磋, 玉謂之琢, 石謂之磨。(『爾雅·釋器』) / 人之學問如能成就, 猶骨象玉石切磋琢磨也。(論衡·量知) / 切磋琢磨, 屢治而益精。(『原詩·內篇上』)

29) 瞻彼淇奥, 綠竹猗猗。有匪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瑟兮僩兮, 赫兮咺兮。有匪君子, 終不可諼兮。(『詩經·衛風·淇奥』)

30) 它山之石, 可以爲錯。……它山之石, 可以攻玉。(『詩經·小雅·鶴鳴』)

31) 人之學問如能成就, 猶骨象玉石切磋琢磨也。(『論衡·量知』) 왕충(王充)은 '절차탁마(切磋琢磨)'를 하나의 학문하는 방법으로 비유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문화 코드라고 할 수 있는 '절차탁마'는 '자르고, 다듬고, 쪼고, 갈아내는' 네 가지의 유사한 가공의 '반

찬할 때 ‘이제 비로소 너와 『시(詩)』를 논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논어』에서 ‘절차탁마’와 관련된 문장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sup>32)</sup> 주석<sup>32)</sup>의 대화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침례하게 진행된 일종의 변론이며 ‘절차탁마’가 온전히 하나의 문화어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된 문장이다. 문장의 형식은 두 사람의 문답이 이어지는 가운데 점점 깊이를 더하는 점층적 ‘반복’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반복’ 변론 대화법은 높은 경지의 모범적인 학습 모형을 제시한다.

앞에서 ‘절차탁마’는 하나의 온전한 문화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것의 문화적 의미를 본 논문의 주제인 ‘반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좀 더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어는 단어로서의 단편적인 의미를 제외하고도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하는데 ‘절차탁마’는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지금의 의미로 먼저 풀어보면 ‘서로 함께 연구하며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고친다.’가 되는데 그 안에는 ‘반복적인 학습’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과 ‘서로 관심을 가진 내용’들이 들어있다. 사실 이보다 더 집약적으로 완벽하게 한 인간의 문화적인 삶을 유지하는 요소와 방법이 잘 표현한 단어가 다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절차탁마’를 다시 공자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풀어보면 함께 연구하는 ‘학습’의 의미는 들어 있으나 타인과의 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고금 ‘절차탁마’가 모두 ‘학습’의 의미 외에도 어떤 행위가 이루어 질 때 그 결과 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문화적 암시를 담고 있다는 것인데 이점에서도 ‘절차탁마’는 하나의 문화어로서 손색이 없다.

복’ 공정을 학문의 방법과 태도에 비유한다. 그리고 ‘절차탁마’는 유가 ‘반복’론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32) 子曰，君子食無求飽，居無求安，敏於事而慎於言，就有道而正焉，可謂好學也已。子貢曰，貧而無諂，富而無驕，何如。子曰，可也。未若貧而樂，富而好禮者也。子貢曰，詩云，‘如切如磋，如琢如磨’，其斯之謂與。子曰，賜也，始可與言詩已矣，告諸往而知來者。(『論語學而』)

### 3. '축적(蓄積)'의 미학

#### 1) '적행(積行)'과 '독행(篤行)'

우리나라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sup>33)</sup>이란 말도 있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도 있다. 굳이 구분하자면 전자는 '축적(蓄積)'에 가깝고, 후자는 '누적(累積)'에 가깝다. '반복'론에서 '축적'과 '누적'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가끔은 구분하여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다. 축적은 '많이 모으는 것'으로 능동성이 강하고, 누적은 '포개어 쌓이는 것'으로 수동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지식을 축적하다'로 표현하고 '피로가 누적되다'라고 표현한다. 두 개념의 관계를 보면 유의미한 누적만을 '축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실 수동적인 '누적'이라 하더라도 문화적 측면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순자(荀子)는 '반복적인 행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품성이 되고, 품성이 쌓여 운명이 된다'<sup>34)</sup>라고 주장하면서 '적행(積行: 행위를 반복적으로 쌓아가는 것)<sup>35)</sup>을 운명의 근원으로 파악하였을 만큼 매우 심오한 철학적 사유를 보여 주었다. 사실 순자의 '적행'에는 '누적'의 의미와 '축적'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누적을 통한 (바람직한) 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적행'의 구체적인 예로 전통 염색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쪽 염색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반물'을 내고, 물의 양과 온도를 맞추고, 시

33) 積土而爲山, 積水而爲海。(『荀子·儒效』)는 이 속담과 유사한 표현이다. 한발 더 나아가 積土成山, 風雨興焉, 積水成淵, 蛟龍生焉。(『荀子·勸學』)에서는 '적행(積行)'의 결과까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4) 積行成習, 積習成性, 積性成命。(『荀子·勸學』) 순자(荀子)의 이 말은 '처음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한 존 드라이든(John Dryden 1631~1700, 영국 시인)의 말로 그 뜻을 풀이할 수 있다.

35) 현대 중국어에서 '적행(積行)'은 일반적으로 '누적선행(累積善行: 선행을 쌓다)'의 의미로 풀이한다.

간을 맞추고 등등 전체 염색 과정은 ‘반복’ 행위로 얻은 누적과 그 누적으로부터 얻은 지식 축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순자가 그런 염색 과정을 깊이 관찰하고 얻은 지혜가 바로 앞에서도 언급한 ‘청출어람(靑出於藍)’이다. 청대(靑黛: 쪽으로 만든 검푸른 물감)는 쪽에서 취하였으나 쪽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변하여 된 것이나 물보다 더 차갑다<sup>36)</sup>라는 관찰의 결과를 철학으로 승화시킨 순자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쪽빛을 ‘반복’ 행위로부터 누적된 지식의 결정체로 보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 과정과 미덕을 ‘적행’으로 표현한 것이다. ‘청출어람’을 포함하여 ‘계이불사(鏤而不捨)<sup>37)</sup> ‘규보천리(跬步千里)’<sup>38)</sup> 등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모두 순자의 ‘적행’ 이론이 공자의 ‘호학(好學)’ 사상을 그대로 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학습에 있어서 ‘반복’이 가져다주는 힘을 믿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권하고 있다.

흔히들 ‘독실(篤實)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독실한 신자’ 등 종교인을 형용할 때 많이 쓴다. 그만큼 ‘독(篤)’이란 단어는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는 뜻으로 매우 묵직한 어감을 지닌다. 독실한 사람은 경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늘 그 자리에 머물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독’자의 이런 어감은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 유가(儒家)에서 ‘학(學: 배움)’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로 이해되는 ‘독행(篤行)<sup>39)</sup>의 ‘독(篤)’은 ‘학습’에서의 ‘습(習)’의 ‘익히다’라는 의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익히고 익혀서 두터워지다’라는 것이 되어 한층 무거운 질감이 느껴지는 단어이다. ‘적행’이 산발적인 ‘쌓음’이라면 ‘독행’은 집중적으로 ‘두터이 하는 것’으로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어감을 지닌다. 이 두 개념을 본 논문의 주제 ‘반복’과 결부시켜 논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념 안에 ‘반복적 행위’라는 전제 조건이 내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널리 배우면서 배운 지식을 두터이 하고, 신중하게 질문을 던지며 주변의 문제들을 심사숙고하면, 그 안에 인(仁)

36) 君子曰，學不可以已。靑，取之於藍而靑於藍；冰，水爲之而寒於水。(『荀子·勸學』)

37) 鏤而舍之，朽木不折，鏤而不捨，金石可鏤。(『荀子·勸學』)

38) 不積跬步，無以致千里，不積小流，無以成江海。(『荀子·勸學』)

39) 博學之，審問之，慎思之，明辨之，篤行之。(『中庸·第二十章』)



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sup>40)</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널리 배우면서 배운 지식(생각)을 두터이 하다(博學而篤志)’를 ‘독학(篤學)’으로 줄여서 하나의 단어로 사용한다. 유가에서 ‘독(篤)’의 개념은 크게 ‘독학(篤學)’과 ‘독행(篤行)’으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학습에 있어서 끊임없는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고, 후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일관되고 진정성이 있으며 믿음이 가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학문과 인간관계에서 깊이와 신뢰를 쌓기 위한 조건이 바로 ‘독(篤)’인 것이다. ‘독행’은 말 그대로 ‘행위’에 대한 절실하고도 엄중한 요구이다. 그러므로 유가에서 이상적인 인물로 설정한 ‘군자(君子)’에게도 ‘독지(篤志: 생각을 두터이 하다)’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제시한다.<sup>41)</sup> 요즘 사회사업 따위의 비영리사업이나 뜻있는 일에 특별히 마음을 써서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왜 ‘독지가(篤志家)’라고 부르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공자는 “말을 믿음 있게 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한다면, 설사 오랑캐 나라에 가더라도 통하게 마련이다.”<sup>42)</sup>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역시 언행 중에서도 특히 행위에 대한 기준을 따로 언급하면서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모두 천박한 행위를 경계하고 언제나 진중한 태도로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 ‘삼인행(三人行)’

중국어 문장에서 ‘개략적인 수’를 나타내는 ‘삼(三)’이나 ‘십(十)’은 일반적으로 ‘여러 번’ 혹은 ‘여러 사람’을 의미하며 ‘복수의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반복’ 행위의 일환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 흔히 말하는 ‘삼인행(三人行)’은 ‘삼인행필유아사언(三人行必有我師焉)’<sup>43)</sup>의 줄임말로써 직역하면

40) 子夏說,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論語·子張』)

41) 篤志而體, 君子也。(『荀子·修身』) 축적한 지식을 하나씩 하나씩 몸소 체험(실천)하며 익혀 나가는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

42)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論語·衛靈公』)

43) 子曰,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論語·述而』)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가 되는데 좀 더 의역하면 ‘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의 삶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가의 근본이념 ‘인(仁)’이 개인이 아닌 ‘사회(복수의 인간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가의 문장에 자주 나오는 숫자 ‘삼(三)’은 복잡한 관계로 구성된 인간 사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의 행위 조건으로서 ‘다자간의 반복 접촉’을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반복 행위에 대한 숫자 ‘삼’의 사용도 비교적 빈번하다. 증자(曾子)의 ‘일일 삼성(一日三省)<sup>44)</sup>을 이어받아 순자(荀子) 역시 유사한 언급<sup>45)</sup>을 하였고 공자는 ‘한 모퉁이를 알려주고 나머지 세 모퉁이는 스스로 알아내다’로 풀이하는 ‘거일반삼(舉一反三)<sup>46)</sup>을 창작하였는데 이를 한국에서는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라고 하여 숫자 ‘삼’의 풀이를 같은 개략적인 수를 표시하는 ‘십(十, 열)’으로 대체하여 쓰고 있다. 특히 ‘거일반삼’의 출처는 ‘반(反)’과 ‘복(復)’이 함께 쓰인 유일한 문장으로 제자의 성실한 ‘반’과 스승의 정성어린 ‘복’이 학습 과정에서 ‘반복’되는 학습 패턴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사실 ‘반복’ 행위는 반드시 시간적 개념으로만 진행되거나 정돈된 형태의 규칙적인 모습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제시한 숫자 ‘삼’이나 ‘십’에서처럼 ‘반복’ 행위는 무작위로 한꺼번에 다량의 반복 실천으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유용한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하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 혹은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지겠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순자(荀子)는 “천리마(千里馬)도 한 번 뛰어서 열 발자국을 갈 수 없고, 평범한 말도 열흘을 꾸준히 가면 천리를 갈 수 있다.”<sup>47)</sup>라고 하여 개략 수 ‘십(十)’을 사용하여 무한 반복적 노력을 묘사하고 있으며 ‘규보천리(跬步千里)’ 혹은 앞에서 언급한 『중용(中庸)』의 ‘인일기백(人一己百)’ 등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

44) 曾子曰，吾日三省吾身，爲人謀而不忠乎，與朋友交而不信乎，傳不習乎。(『論語學而』)

45) 君子博學而日三省乎己，則知明而行無過矣。(『荀子勸學』)

46) 子曰，不憤不啓，不悱不發，舉一隅，不以三隅反，則不復也。(『論語述而』)

47) 騏驎一躍，不能十步。騶馬十駕，功在不舍。(『荀子勸學』)

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유가의 '반복' 특성은 '나[己]'와 '타자[人]'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무한 반복의 상호 작용을 상징하는 하나의 소통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4. '처세(處世)'의 미학

##### 1) '인(仁)'과 '예(禮)'

예로부터 '인(仁)'은 '인(人)'과 통용되는 글자로서 '두 사람'을 의미하며 복수(複數)의 사람 관계 즉, 사회를 의미 한다.<sup>48)</sup> 따라서 '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는 '한 사람[一人]'은 사회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오로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비로소 '인간(人間)'이 된다. 원래 '인간'이라 말은 '인간 사회'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한자 문화권에서 그냥 '사람'의 뜻으로 혼용하는 것은 '인'을 기조로 한 사회에서는 사회관계 속에서의 개인만을 인정하는 유가적 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가 주류인 사회에서 개인은 숙명적으로 복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반복'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왕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면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찾아내는 것이 공자의 인생을 건 목표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인(仁)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인(仁)이 없는 곳에 머문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sup>49)</sup> 라고 하여 공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을 확정하게 된다.

유가(儒家)의 쌍두마차 '인(仁)'과 '예(禮)'의 관계는 도가(道家)에서의 '도(道)'와 '덕(德)'의 관계와 유사하다. '인'이 내적 수양을 요구하는 유가의 기본

48) 仁者, 人也。(『中庸』) 仁, 亲也, 从人二。(『說文解字』)

49) 子曰, 里仁爲美。擇不處仁, 焉得知。(『論語·里仁』)

이념이라면 ‘예’는 ‘인’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따르는 행위 준칙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의 행위와 연결된 유가 ‘반복’론의 절정은 바로 ‘예’를 통하여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 역시 그 출발점을 보면, “무릇 예의 처음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비롯된다.”<sup>50)</sup>는 말처럼 현실 생활 그것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반복’이라는 삶의 원초적 생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자(有子)가 말하기를, “‘예’의 쓰임은 ‘화(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자고로 성군(聖君)들은 이를 가장 아름답다고 여겼다.”<sup>51)</sup>라고 하여 반복 절차로 점철된 ‘예’의 쓰임을 ‘미(美)’와 연결시키고 있다. 남녀(男女), 군신(君臣), 빈부(貧富), 음양(陰陽), 천지(天地) 등등 모든 사람과 사물의 ‘각득기의(各得其宜: 각자 분수 지키기)’<sup>52)</sup> 원칙에도 어김없이 반복적인 ‘예’의 절차를 따르는 습례(習禮)를 진행하였다. 순자(荀子) 역시 ‘예’의 기원과 사람을 연결하여 “예는 어디에서 시작 되었는가? 아마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그 욕망을 그칠 수 없고 계속해서 끝도 없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 다투지 않을 수 없고 다투게 되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곤궁하게 된다.”<sup>53)</sup>라고 하며 사람의 원초적인 욕망과 ‘예’의 시작을 인과(因果) 관계로 파악하였다.

유가의 ‘예’는 ‘덕(德)’의 외화(外化)로서 ‘반복’론의 결정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예’는 원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로 제례를 행하여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그 일련의 행위가 제사[神]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는 사회적 인간의 엄숙한 태도를 상징하며 그것의 복잡한

50) 夫禮初也，始於飲食。(『孔子家語問禮』)

51) 有子曰，禮之用，和爲貴，先王之道，斯爲美。(『論語學而』)

52) 聖王在上，圖德而定次，量能而授官，皆使民載其事而各得其宜。(『荀子·正論』) 왕이 위에서 인품의 크기에 따라 자리를 정해 주고,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내리면, 모든 백성들이 자신이 일을 맡을 때 모두 적절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된다.

53) 禮起於何也，曰，人生而有欲，欲而不得，則不能無求，求而無度量分界，則不能不爭。爭則亂，亂則窮。(『荀子·禮論』)

격식들은 모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의 '반복' 형태로 이루어지며 사람들에게 반복적 숙달을 요구한다. '행례(行禮: 예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복' 행위를 요구하는 섬세한 절차의 격식 속에 인간을 밀어 넣어 외형적·내면적 '예'를 동시에 갖추도록 단련하기 위한 일종의 행위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행례의 절차가 복잡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자가 주공(周公)의 묘당에 갔을 때 행하는 절차마다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어떤 이가 “누가 숙량홍(叔梁紇)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하였는가! 주공의 묘당에 들어 행하는 절차마다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고 비난하였다. 공자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입니다.”라고 하였다.<sup>54)</sup> '예'를 주창한 공자조차 그 절차에 스스로 기꺼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로부터 제사 의식이 가장 성스럽고 복잡한 '반복' 절차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사람과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유가의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유가 사상으로 '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가 지니는 '반복'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속에 내재한 절차가 지니는 일련의 '반복' 메커니즘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자의 '인(仁)'을 좀 더 현실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맹자(孟子)의 '성(誠)'이다. 맹자는 스스로 공자(孔子)의 후계자임을 자처하였다. 그래서 그의 저서 『맹자(孟子)』는 『논어(論語)』의 주석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자 사상을 철저히 계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자의 사람[人]에 대한 인식과 사상을 기초로 민본(民本) 등의 정치적 이념을 탄생시켰고, 또한 '사단(四端)'과 더불어 다소 소극적으로 보이던 공자의 '인(仁)'을 적극적인 철학 사상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그 중에서도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공자의 '학습'과 '호학'을 뒷받침하는 '발분망식(發憤忘食:부지런한 실천)' 정신을 계승한 것이 맹자의 '성(誠)' 사상으로 그는 “성(誠)은 하늘의 이치이고, 그 성(誠)을 늘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다”<sup>55)</sup>라고 하여 '성(誠)'을 하늘의 도(道) 즉,

54) 子入太廟，每事問。或曰，孰謂邴人之子知禮乎。入太廟，每事問。子聞之曰，是禮也。（『論語·八佾』）

‘어김없이 반복되는’ 우주의 운행 원리로 파악하였고 나아가 “정성을 다하면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정성을 다하지 않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은 일찍이 없었다.”<sup>56)</sup>라고 하여 ‘성(誠)’을 수신(修身)과 인간관계의 근본으로 삼았다. 또한 “만물이 내 몸 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내 몸을 반복하여 돌아보고 정성을 다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으며, 스스로 자신에 비추어 넓은 아량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어진 삶에 가까운 것은 없다.”<sup>57)</sup> 라고 하였는데 ‘반복’의 개념을 ‘반신(反身: 반복해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전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고 있다. 공자의 ‘제(祭)’와 맹자의 ‘성(誠)’ 모두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정성어린 반복’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仁)’을 근간으로 하는 유가(儒家)로서 ‘인간’을 가장 먼저 맨 앞에 놓는 것은 당연하다. ‘반복’론 역시 단순한 지식의 자료 축적보다는 그 지식과 결부된 인간 감성(感性)<sup>58)</sup>의 변화에 주목하며 인간의 ‘반복’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성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 왔다. 유가에서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 놓은 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 행위에 대한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글을 통하여 주저 없이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쏟아내고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과제는 대부분 ‘성실한 반복’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인간의 ‘감성’ 작용에 관한 것이다. 감성의 자극을 통한 감정 ‘온도’의 상승과 정신 ‘동력’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 대장간에서 불에 달궈진 쇠를 반복해서 닦달하는 장면은 ‘반복’론의 상징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대장장이의 치열한 ‘반복’ 동작과 동반되는 ‘온도’ 상승은 양자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 또 한 예로 시문(詩文)에서는 단순한

55) 是故誠者，天之道也。思誠者，人之道也。(『孟子·離婁上』)

56) 至誠而不動者，未之有也，不誠，未有能動者也。(『孟子·離婁上』)

57) 孟子曰，萬物皆備於我矣。反身而誠，樂莫大焉。強恕而行，求仁莫近焉。(『孟子·盡心上』)

58) ‘감성(感性)’은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질이나 능력을 가리킨다. ‘감성’과 ‘감정’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지만, ‘감성’이 일상의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구절 반복은 피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종 이를 어기는 '반복'을 통하여 감정의 흐름을 풍부하게 하면서 모종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낸다. 공자가 자신의 글에서 단순 반복 시구를 특징으로 하는 『시경』의 구절을 자주 인용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반복적인 후렴구는 인간의 감정을 붙들고 작품이 유도하는 감성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한 편의 유장한 시를 듣거나 단순 반복을 주제로 하는 노래나 시를 듣고 마음의 평온을 느끼는 것도 '반복'이 자극하는 감정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사물을 반복하여 마찰시키면 열이 발생<sup>59)</sup>하듯 사람의 감성도 이리저리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열이 나게 마련이다.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반복' 메커니즘은 마치 공기처럼 인간의 행위 속에 늘 존재하며 인간을 자극하여 에너지를 축적하고 삶의 동력을 만들어 낸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온도'를 담고 있듯이 인간의 행위에도 정신적 '온도' 에너지가 존재하며 그 온도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일상의 '반복'이다. 물질은 마찰에 의해 온도 에너지를 만들고 인간은 행위의 '반복'을 통해 정신적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이다.

## 2) '수렴(收斂)<sup>60)</sup>과 '정위(定位)

'수렴(收斂)'이 구체적인 무한 '반복'의 과정을 형상화한 표현이라면 '정위(定位)'는 '위치를 잡다(정하다)'라는 의미로서 '수렴'의 최종적인 목적지 즉, 사회적으로 어느 분야의 직책이나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본분' 혹은 '역할'의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으며 도덕적인 잣대로는 '분수를 지키다'의 '분수'로

59) 일을 할 때 마찰이 발생하면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한다. 실험에 의하면, 모래를 반쯤 담은 병에 온도계를 꽂고 입구를 막은 다음 일정한 힘과 속도로 병을 흔들면 흔든 횟수와 온도는 비례한다.

60) '수렴(收斂)'은 사람의 언행과 관련하여 중국어에서는 '(언행)을 삼가다·조심하다'의 뜻으로 쓰이고, 한국어에서는 '의견·주장·여론 등을 한데 모으다'의 뜻으로 쓰인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들을 때 당연히 신중하게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두 해석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해할 수도 있다. 아무튼 ‘수렴’과 ‘정위’ 모두 처세술과 밀접한 개념으로 당연히 인간 행위의 ‘반복’ 특성과 연결된다.

유가(儒家)의 ‘반복’ 문화 특성은 앞의 ‘인일기백(人一己百)’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리적 측면에서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실천의 의미를 담기도 한다. 그러므로 ‘겸손’과 ‘실천’을 ‘반복’ 미학의 핵심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인(仁)’과 ‘예(禮)’을 기조로 하는 유가 사회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정의하고 ‘예의’를 지키며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반복’을 겸손과 실천의 의미로 파악할 때 우리는 ‘수렴’과 ‘정위’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두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반복’과 연결하여 보면, 인간이 어떤 유의미한 ‘반복’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마치 수학에서 분수(分數)의 분모가 무한으로 계속 커질수록 ‘0’에 수렴하듯이 스스로 정한 목적지로 가서 자신의 위치를 잡으려는 것[定位]과 유사하다. 즉, ‘반복’은 자리를 잡기 위한 ‘수렴→정위’의 메커니즘에서 이용하는 매우 유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반복’ 행위가 개인적 혹은 심리적으로는 루틴(routine 일상의 반복 행위)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사회적으로 자신의 ‘자리[位]’를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타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 역시 비록 동물과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영역’ 본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영역 본능’이 침해를 받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공격하게 된다. 특히 인간의 사회적 신분 차이를 인정했던 유가에서는 ‘위(位: 위치, 신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하여 극도로 혐오하였다.<sup>61)</sup> ‘영역’ 싸움이 치열한 정글(인간 사회)에서 우리에게 만능영역해제의 열쇠를 제공할 수 있는 처세술이 바로 ‘수렴(收斂)’과 ‘정위(定位)’이고 이 두 개념이 유효한 사회적 현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반복’ 미학인 것

61) 아래의 예문을 보면 공자와 맹자의 ‘위(位)’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子曰,不在其位,不謀其政。(『論語·泰伯』)(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의 일을 논하지 않는다.)位卑而言高,罪也。(『孟子·萬章下』)(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곳의 일을 말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다.

## 5. 맺음말

하나의 문화 현상을 찾아 그것에 대한 정신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 문화 현상이 현재의 일상생활에도 늘 함께 존재한다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존하므로 그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런데 '반복' 미학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미래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발굴과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선진(先秦) 유가(儒家)의 '반복'론을 하나의 담론으로 설정하고 따로 토론한 것은 '반복'론이 우리의 삶에 보편적으로 스며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드러내어 살펴보고자 함이었고 지금의 시각에선 다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반복' 행위들을 고대 수많은 지혜의 기록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성현들의 '반복'에 관한 긍정과 그 정당성에 관한 주장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다만 새로운 영역 연구의 출발점에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고 필자가 생각하는 '반복'론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 다룬 '학습'과 '축적' 그리고 '처세'로 나누어 '반복' 미학에 대한 초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연구자의 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공자(孔子)의 '학습(學習)'으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부지런한 반복 실천' 정신은 '호학(好學)', '발분망식(發憤忘食)', '불분불계(不憤不啓)' '인일기백(人一己百)' 등 매우 다양한 의미와 표현으로 유가의 사상적 맥락 속에 유유히 흐르고 있다. 공자의 계승자를 자처한 맹자(孟子)가 창안한 새로운 '성(誠)'의 개념은 언뜻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공자의 '반복' 사상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그 의미가 뚜렷해진다. 유가의 현실주의 사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던 맹

자에게 공자의 ‘반복’ 미학 사상은 ‘성(誠)’이라는 신개념으로 확대되어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기술로 확대 발전시켰고 이어서 ‘청출어람(靑出於藍)’으로 대표되는 전국(戰國) 말기 혁신적 사상가였던 순자(荀子)의 ‘적행(積行)’론으로 온전하게 계승되었다. 그 후로도 다시 수많은 후대 사상가들의 ‘반복’ 사상에 대한 이해와 전승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의 문화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꾸준한 ‘반복’을 하나의 미덕으로 여기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유가(儒家)의 ‘의미 있는 반복’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루쉰(魯迅)이 “사실 땅에는 원래 길이 없었으나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니 길이 생긴 것이다.”<sup>62)</sup>라고 하였듯이 일상에서 우리의 ‘반복’의 행위는 루쉰이 말한 ‘길’을 내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일상의 ‘반복’에 대하여 사색의 눈으로 관조할 필요가 있다.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현대의 삶 속에서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의 ‘반복’의 의미를 깨우치는 조병화(1921-2003) 시인의 노래<sup>63)</sup>처럼 늘 ‘의미 있는 반복’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크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62) 其實地上本沒有路, 走的人多了, 也便成了路。(魯迅「故鄉」)

63)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가를. (조병화「지루함」)

## 參考文獻

- 楊伯峻, 『論語譯注』, 北京:中華書局 1996
- 程樹德, 『論語集釋』, 北京:中華書局 1996
- 楊伯峻, 『孟子譯注』, 香港:中華書局 1984
- 謝冰瑩 外, 『新譯四書讀本』, 臺北:三民書局 中華民國七十七年
- 王忠林, 『新譯荀子讀本』, 臺北:三民書局 中華民國六十六年
- 王先謙, 『荀子集解』(全二冊), 北京:中華書局 2007
- 孫希旦, 『禮記集解』(全三冊), 北京:中華書局 1995
- 程俊英 外, 『詩經注析』, (全二冊), 北京:中華書局 1996
- 陈昭英, 『儒家美学与经典诠释』, 上海:华东师范大学出版社 2008
- 김영인 외, 『시각표현과 색채구성』, 서울:교문사, 2003
- 미학대계간행회, 『현대의 예술과 미학』, 서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요계 스텐비스트 지음·용형준 옮김, 『스웨덴 슬뢰이드 장인의 그린 우드카빙』  
경기:다봄 2019
- W. 타타르키비츠 지음·손효주 옮김, 『미학의 기본개념사』, 경기:도서출판 미  
술문화 2022
- 许共城, 「论儒家美学思想的特征和演变」, 厦门:厦门大学学报 1995
- 任芳莹, 「先秦时期儒家的美学思想」, 济南:现代教育 2008
- 宫敏燕, 「论儒家美学思想的现代意义和启示」, 济南:现代教育 2008
- 李占伟, 「"反复"的美学意蕴初探」, 四川:阿坝师范高等专科学校学报 2010
- 李占伟, 「"反复"的美学哲学思考」, 济南:山东师范大学文学院 2010
- 李玉婷, 「浅析先秦儒家及亚里士多德对习惯的重视」, 南京:华人时刊旬刊 2013
- 장준영, 「발분(發憤)의 궤적을 통해 본 인간정신의 '미학적 동력(動力)' 생성에  
대한 고찰」 서울: 중국연구 2016

## Abstract

### A Study on the 'Fǎnfù-Repetition' Aesthetics of Confucianism in the Pre-Qin Period

Jang, Jun Young

The aesthetics of 'repetition(反復)' is one of the unique cultural forms of the advanced Confucianism. The commonly used expression "at least three times" can be understood as a part of the aesthetics of 'repetition' in Confucianism, and shows that our lives and culture are very closely connected with Confucianism. First of all, in this thesis, the value and cultural meaning of the aesthetics of 'repetition' are clearly explained, and In the full-scale study, it was divided and considered as follows: Confucius' theory of 'learning(學習)', the theory of 'accumulation of actions(積行)' of Xunzi and the theory of 'skill of conduct(處世)' in the core ideas of Confucianism, 'Benevolence(仁)' and 'Litual(禮)'.

**Key words** : Confucianism, repetition, aesthetics, culture, accumulation, procedure

투 고 일 : 2022. 7. 10. / 심 사 일 : 2022. 7. 15. ~ 2022. 8. 15. / 게재확정일 : 2022. 8. 20.